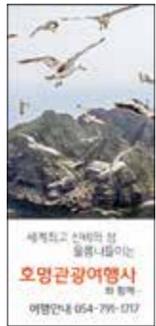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단체장 일정

윤경희 청송군수는 3일 오전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고위직 폭력예방 통합교육'에 참석한다.



윤석준 동구구청장은 3일 오전 봉두파 크로프장에서 열리는 '제6회 동구파 크로프 협회장기대회' 개최식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경북도, 10년치 분석...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출산지원금 과도경쟁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 변질됐다 우려



문경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식 성료

'평화'와 '우정'의 축제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3군의장대공연 피날레 장식...즐거움 선사했다

세계 군인들의 태권도 축제인 '제27회 경북문경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식이 지난 31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회는 국방부가 주최,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가 공동으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후원했다.

대회 개최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신현국 문경시장과 김동열 국군체육부대장 외에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 대표단 및 세계 20개국 선수단을 비롯한 한 나라의 귀빈과 문경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국기원 태권도 시범, 특전사 고공강하,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과 3군의장대공연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며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개회식에 이어 국군체육부대에서는 국방홍보원 주관으로 국군장병과 문경시민이 함께하는 국군방송 위문열차가 진행되어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20개국에서 2600여 명의 정상급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1~3일까지 국군체육부대(선승

관)에서 남녀 각 8개 체급에서 승부를 겨룬다. 대회 진행 간에도 각 군 및 해병대 군악대의 장대 시범을 비롯, 문경시 난타 공연, 각종 태권도 시범 등 선수와 국민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국방부와 문경시는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만전을 기했다.

경기장 및 행사장 별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교통 관리와 의료부스(응급차 운영) 등 신속한 교통체계를 마련했다.

문경 특산품과 관광지를 활용한 문경 홍보이벤트 대회 참가자와 관람객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문화의 날' 운영을 통해 우수한 한국 문화 전파에도 힘쓴다.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 등록된 종목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198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6회 대회를 개최했다.

16년만에 태권도 종주국에서 개최하게 된 이번 대회 구호는 '세계 속의 태권도! 평화와 우정의 축제'다.

태권도의 세계화 및 참가국 군인 선수 간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국기(國技) 태권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인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은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경계적·성공적으로 개최한 검증된 국제 스포츠 도시로 대규모의 국제대회를 다시 개최하게 됐다'고 태권도로

하나되는 이번 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수 기자

안동·예천 등 7개 지역 오물풍선 신고...

2일 오전 10시까지 식별된 오물풍선은 약 600개 서울·경기 충청·경북지역 낙하



2일 오전 8시 40분께 영양군 입암면 양항리 마을회관 인근에 북한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이 경북지역에서도 발견됐다.

북한이 1일부터 국내를 향해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경찰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2일 오전 10시까지 식별된 오물풍선은 약 600개로, 약 20~50개가 공중 이동해 서울·경기·충청·경북지역에 낙하하고 있다.

이날 경북소방안전본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예천군 보문면 한골포장에서 대남 오물풍선으로 보이는 물체 1개가 식별됐다.

오전 8시 51분에도 안동시 예안면 한밭에서 북한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 1개가 발견됐다.

오전 8시 40분께에는 영양군 입암면 양항리 마을회관 인근에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 풍선 잔해가 발견돼 경찰과 군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현장에는 오물이 들어있는 봉투와 터진 풍선 등이 떨어져 있었다.

투명한 봉투 안으로 수많은 종이조각과 비닐, 담배꽂이 등이 보였다.

군은 오전 11시 현장에 도착해 폭발물과 독극물 등이 있는지 특수 전담반을 투입해 확인 후 수거해 갔다.

권윤동 기자

변질됐다 우려도 있다.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이철우 경북지사는 평소에도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도는 10년 치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 사례와 국제 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분석했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

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등 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 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내놓았다.

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군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조사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시군에서는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

도는 지난달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를 방문,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 효과성 검증을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군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은 국가에서 일괄 지급하고 지역에서는 현장 요구에 맞는 돌봄 기반과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도내 22개 시·군은 자체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첫째 아이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에서 최소 0만 원, 셋째 아이 기준 최대 2600만 원에서 최소 140만 원으로 시군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김성용 기자



제1회 청송백자축제가 성황 청송군, 500년 역사를 넘어 천년의 약속으로 구호를 내건 제1회 청송백자축제가 성황리 개최됐다. 행사는 지난달 31~2일까지 3일간 청송백자도예전 일대에서 열렸다. 사진은 불꽃이 공연 모습이다. (사진=청송군 제공)

경주시, 작년 국제회의 개최 전수 기초 지자체 '1등'

국제컨벤션협회 발표 아시아·태평양 지역 55위 기록하는 영예

경주시가 지난해 국내 기초 자치단체 중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도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국제회의의 개최에 최적화된 도시로서 숙박 수용능력, 공항시설, 회의시설 등 충분한 회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굴뚝 없는 황금산업인 마이스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국제회의 유치로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컨벤션협회(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ICCA) 발표에 따르면 '2023 세계 국가별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실적 순위'에서 경

주시가 이같이 선정됐다. 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55위의 순위를 기록했다.

국내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ICCA 세계 순위에도 진입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본 히로시마, 태국 푸켓 등 글로벌 도시와 공동 27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위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62위, 세계 326위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성과이다.

ICCA는 1963년 설립된 세계 최대 국제컨벤션 네트워크 데이터를 보유한 컨벤션 전문 국제기구다.

매년 ICCA 통계보고서를 발간해 세계 각국의 국제회의 개최 실적 집계 및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실적 집계 대상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가운데 참가자가 3개국 이상, 50명 이상인 회의에 대한 순위를 매기며, 이는 도시의 글로벌 MICE 산업 경쟁력을 가

늠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ICCA 실적 집계 기준 총 7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개최된 주요 국제회의를 살펴보면 2023 원자력산업국제회의, 제24회 국제식물생장물질 학술대회, 제6차 아시아 분말재료 국제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이 있다.

지난해 마이스 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후 국제 마이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유치 및 개최 잠재 수요를 꾸준히 발굴한 결과이다.

보문관광단지 내 반경 3km에 집적된 숙박, 회의장 등의 시설 인프라는 물론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4곳의 공항과 KTX·SRT의 신속한 철도 등 우수한 교통망도 한몫했다.

2022년 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법정부담금 감면, 관광기금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더해졌다.

윤용찬 기자

홍준표, "여론조사 조작 가능..."

응답률 15% 이하 발표 금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응답률 15% 이하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고 이른바 보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 전당대회 때 3억원을 주면 10%는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 발표 때도 득표수보다 10% 이하로 발표됐지만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선거 결과와) 근사치로 발표됐다"며 "그게 한국에서 제일 신뢰성 있다는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특정 후보의 대세를 만들어 주기 위한 작위적인 여론조사였다고 나는 본다"며 "이번 총선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을 보였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것을 본다"고 덧붙였다.

조작해 주겠다고 제의한 어느 여론조사기관이 다시금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응답률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는 설계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여론조사 무용론을 내가 제기하는 것은 그런 것에 기인한다. 2017년 탄핵 대선 때 선거 1주일 전까지 내 지지율은 7~8% 한 자리로 발표됐다"며 당시를

참고했다. 홍 시장은 "여론조사 무용론을 내가 제기하는 것은 그런 것에 기인한다. 2017년 탄핵 대선 때 선거 1주일 전까지 내 지지율은 7~8% 한 자리로 발표됐다"며 당시를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6월 3일 월요일 2

수성구, '제2회 행복수성 가족상 시상식' 개최

수성구는 지난달 31일 수성대학교 다목적강당에서 '제2회 행복수성 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행복수성 가족상 시상식은 가족의 소중함을 고취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 가족을 발굴하는 행사다.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해, 심사위원회 의견을 거쳐 원양부부, 희망가

족, 행복가족, 평등가족 수상자로 선정했다.

30년 이상 결혼생활에서 지금까지도 다정하고 화목한 부부에게 수여하는 원양부부상은 문한수·이은희 부부가, 희망가족상은 질병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해 저출산 시대에 본보기가 된 박소영 가족이 수상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 첫 삽...

6월 선도사업 3건 공사 착공 국비확보 차질 없는 사업 추진

2025년 안심습지 일원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금호강 르네상스를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 3건에 대해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올해 6월에 공사 착공하고, 금호강 하천조성사업은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금호강 르네상스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선도사업 3건은 총 810억원(국 405, 시 405)이 투입된다.

중앙정부로부터 올해 공사에 소요되는 국비 예산 109억 원을 이미 확보해 차질 없이 2026년까지 연차별로 완료할 예정이다.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사업비 60억 원)은 천혜의 하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는 금호강 안심권역 일원에 안심습지·금강습지·팔현습지를 연계해 시민들이 생태·역사·문화자원을 보다 쉽게 탐방할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와 조류관찰대, 전망대 등을 조성한다.

6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5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해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중 가장 빨리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사업비 300억 원)은 6월에 공사 착공해 2026년까지 디아크 주변 문화관광자원(하원유원지, 달성습지)의 연

계를 위한 랜드마크 관광보행교(L=428m)에 전망대, 낙하분수,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고, 주변에 흥밋문화광장, 갈대원, 풍경의 창 등 배후시설을 설치해 디아크 일대를 전국적인 두물머리 생태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금호강 하천조성사업(사업비 450억 원)은 오는 9월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해 2026년까지 금호강 동촌 일원에 호안정비, 비오톱 복원 및 야외 물놀이장과 음악분수, 샌드비치 등을 조성해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수변 공간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이들 선도사업은 금호강 르네상스의 핵심 목표인 열린 금호강(공간복지 실현), 활기찬 금호강(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금호강(기후위기에 강한 도시)을 실현하고 있으며, 생태보존과 동시에 적극적 친수공간 개발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 금호강을 자연과 함께하는 시민의 공간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향후 하중도, 금호위터폴리스 일원 금호강 주요 거점 친수공간 조성 및 거점 간 연계사업 등 금호강 전 구간에 대한 본사업도 단계별로 추진해 글로벌 내륙수변도시 조성을 향한 금호강 르네상스를 완성시킬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금호강 르네상스의 마중물 격인 선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금호강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대구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군위군, 80세 대학생들의 외침 '군부대 이전은 우보로!'

미래 청년들 생각하며 군부대 이전을 외치다

군위군은 지난달 30일 산성면 복지회관에서 개최한 2024 삼국유사 청춘대학 현장을 찾아 대구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유치 활동을 펼쳤다.

당일 현장에는 평균 연령 80세의 산성면 청춘대학 수강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뜨거운 학구열과 함께 고향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하나 되어 대구 군부대 군위 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선 행사 시작 전에 대한노인회 군위군 지부 산성면 분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대구 군부대 군위 우보 이전을 염원하는 현수막과 "대구 군부대 이전은 우보로! 우보로! 우보로!" 이전 구호를 제창하며 대구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날 참석 한 학생은 "오늘 대구 군부대 이전에 대한 진행상황,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군부대 이전으로 획기적으로 발전될 고향 군위의 미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반드시 대구 군부대가 군위로 이전되어, 내 고향 군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25만 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려면 오늘과 같이 청춘대학에 열심히 다녀서 건강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박재성 기자

수성구, '간부 공무원과 함께 청렴Hz 라디오' 운영

수성구는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월부터 간부 공무원과 함께하는 '청렴 헤르츠(Hz) 라디오(이하 '청렴라디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청렴라디오는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 7명의 청렴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송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달 29일 첫 방송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일일 진행자로 나서 '청렴한 공직자를 주

제로 청렴라디오'의 시작을 알렸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공직자가 주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과 가치를 늘 상기할 것을 주문했다.

수성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교육, 청렴데이 캠페인, 청렴주의보 발령 등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조미경 기자

군위군, 제15회 삼국유사 퀴즈대회 참가 신청 접수

9월 7일부터 8일 개최 학교당 4인 1팀 구성 1박 2일 체류형 프로그램



군위군은 '제15회 삼국유사 퀴즈대회'를 오는 9월 7일부터 8일 군위군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 학교당 4인 1팀으로 구성해 학교 대항전으로 진행된다.

당일로만 진행했던 기존의 퀴즈대회와는 달리 유명 강사 역사강연, 군위 관광명소 투어 등 1박 2일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또한 행사 중 맨스공연 및 각종 체험 부스도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총 1000만원의 상금을 두고 진행되며, 대회 1등 우승 학교에게는 400만원의 상금 및 치킨 100마리, TBC의 '생방송 쿠폰데이'에 출연해 학교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3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메일(gunwiquiz@naver.com)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모집 정원은 선착순 20팀이다.

자세한 대회 개요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국유사 홈페이지(www.samgukyus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위군수는 "이번 퀴즈대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삼국유사가 갖는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군위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달성군, '2024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성료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위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동참

달성군보건소가 지난달 29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 극복을 기원하는 자리로, 치매 인식개선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유가를 테크노폴리스중앙공원에서 진행된 걷기 행사는 공원 둘레길 걷기 활동을 포함해 치매예방체조, 치매 OX퀴즈, 단비와 함께하는 포토부스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도 제공됐다.

또 인지학습 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인지체험부스'를 남부노인복지관과 연계 운영하여 펜토미노 퍼즐, 구슬퍼즐, 오색사다리 체험, 후호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인식개선사업의 의의는 모든 세대가 치매환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돕는 데 있다"며 "이번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여 행사의 취지를 더욱 빛냈기에 뜻이 깊다"고 말했다.

달성군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매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지하철역 인식개선 캠페인, 전통시장



가두행사 등 치매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인식개선사업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치매안심센터(☎053-668-3841)로 문의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한국폴리텍대학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스마트팩토리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전문인력양성사업 개강

달성군과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산학협력처는 지난달 27일, '스마트팩토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전문인력 양성사업'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스마트팩토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진행되는 사업이다.

관계 기업체의 스마트공장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해 구인 수요에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교육생 선발면접을 통해 합격한 청년·중장년의 구직자 17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공장화로 인한 특정 자격증(설비보전기사 등) 소지자 선임 의무화에 따라 관련 직종 취업희망자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된다.

사업내용은 △MES실무, △로봇운용실무, △설비보전, △공공유압실무, △전기실무, △PLC 제어 등 실습 위주의 전문기술 교육훈련 310시간과 인성·특강 24시간, 취업관련워크샵(취업드림스쿨) 6시간, 기업체 견학 6시간, 취업박람회 6시간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자격증 취득 지도 및 취업 지원,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첨단스마트자동화 기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양성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넘쳐나는 달성이 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둘째아 이상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구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도 '셋째아 이상 자녀'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로 확대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7월 31일이다. 입학생의 부모 또는 모가 공고일 기준 이전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보조금24'(온라인)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j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화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청장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6월 3일 월요일 3

대구한의대, '영덕 저출생 전쟁 대응 하니돌봄대학' 운영

대구한의대학교 세대통합지원센터가 영덕군 저출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영덕 저출생 전쟁 대응 하니돌봄대학'을 시작했다.

대구한의대 화장품학과 민대현 학생강사는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더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진행되는 영덕 저출생 전쟁 대응 하니돌봄대학은 미술심리치료학과가 매주 화·목요일에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 드럼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 외의 미술심리에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최고 명소

경북교육청, '교육맛집 경북교육관' 인산인해

'교육맛집, 경북교육관'이 상종가다.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운영하는 '교육맛집, 경북교육관'이 29일 개장부터 관람객이 몰리면서 화제를 낳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교육부와 전남도, 전남교육청과 함께 공동 주최하고 있다.

미래교육박람회는 크게 콘퍼런스 및 미래교실, 전시, 문화예술교류, 미래교육 축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 실시간 수업

콘퍼런스는 마이클 샌델, 데니스 홍, 폴 킴, 토머스 프레이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날짜별로 기조 강연을 열고, 해외 12개국과 국내외 연사 100여 명이 참여하는 49개의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미래교실은 박람회장에 구축된 글로벌 미래교실에서 총 59시간, 139명의 교사와 1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일본과 중국 등 다양한 국가와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선보이고 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 수업을 분석하고 즉시 피드백까지 제공하고 있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교류에는 23개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80여 개 국내외 공연팀과 7개국 400여 명의 학생이 참여, 문화 예술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시관은 대한민국교육관과 기업관, 국제교육관으로 구분돼 17개 시도, 국내외 112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경북교육관 문전성시

대한민국교육관은 경북교육관과 전남교육관, 교육부관, 시도교육관이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 설치된 경북교육관의 지난 30일 모습.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관에 방문객들의 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교육관은 국제관 B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350㎡의 독립 공간에 구축되어 있다.

입구에 도착하면 '교육맛집 경북교육관'이라는 타이틀과 외벽에 걸린 '당신처럼 빛날 교육의 미래'라는 슬로건이 눈에 들어온다.

입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미래로 PC방 코너에서 경북교육청 생성형 AI로 구현되는 각종 교수학습과 업무용 사이트, 툴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최근 구축한 정보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디지털지식마루'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돼 있다.

'커리 살롱'에서 학생 맞춤형 학습을 돕는 온라인 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을 만나게 된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공간은 DI박스 형식으로 재현이 되어있고, LP판처럼 전시된 강좌를 스캔하면 해당 수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 디지털 교육 소개

따뜻한 경북 R-컴퓨터 코너에서는 경북교육청의 디지털 교육 노하우를 세계와 함께 나누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에티오피아와 과테말라, 몽골 등에 대한 정보화 교육지원과 재생 컴퓨터 보급 사업을 만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카페의 모습으로 구현된 '태어난 김에 한국 유학' 코너가 기다린다.

대한민국 최초로 직업계고 우수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코너로 4개국에서 경북내 8교의 특성화고로 유학 온 48명의 학생을 날

짜별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맞은편의 가로 6m, 세로 4m 크기의 대형 TV를 통해서 경북교육의 다양한 모습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교육맛집 TV'가 자리하고 있다.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쓰인 기둥을 중심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온학교', '도전 꿈성취 인증제' 등 세 가지 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돼 있다.

사이버 독도학교 인기 왕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기 위한 경북교육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독도 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실천하고 있는 사이버 독도학교를 방문해 볼 수 있다.

2021년 4월 구축 이후 누적 방문자 수가 140만 명을 돌파했다.

1만 7000명이 독도학교 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수강하고 있는 인원도 1만 7000여 명으로 명실공히 독도 교육의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북교육 100년의 역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경북교육사이버박물관' 코너가 있다.

두 대의 키오스크에서 경북교육의 모든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개장과 함께 최대 수용 인원 300명을 금방 채운 관람객들은 경북교육의 오랜 역사에서부터

최첨단 디지털 환경, 독도에서 해외 유학생을 아우르고 있는 경북교육관에서 색다르고 소중한 경험을 하고, 출구에 설치된 팝콘 체험장을 마지막으로 교육관을 나서며 한결같이 '교육맛집'이라며 언저리를 치켜세웠다.

김성용 기자

이중 언어 말하기대회 본선 14명 실력 겨뤘다

'2024 경북-전남 이중언어 말하기대회'가 지난달 31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다.

대회는 경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공동 개최했다. 대회는 아주 배경 학생의 강점 언어 재능을 조기에 발굴해 이중 언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은 이 대

회에서는 예선 대회를 거쳐 본선에 오른 학생 14명(초등 7명, 중등 7명)이 나와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인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카탈루냐어, 아랍어, 몽골어, 필리핀어, 자메이카파트와어 등 9개 언어로 실력을 겨뤘다.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초등부와 중등부 학생 각 1명과 소수 언어 우수 학생 1명은 오는 11월 교육부와 LG연암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하는 제12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경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대구교육청, 올해 첫 추경예산 편성...1947억 규모

대구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1947억원이 증액된 4조 2798억원으로 편성, 대구시의회에 제출한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등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기반교육혁신 등 국가 교육개혁 추진 과제를 선도하고 학습역량 성장과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대구교육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919억원, 대구시로부터의 지방세 등 이전수입 734억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등 294억원으로 기정예산(4조 851억원)의 4.8%인 1947억원이다.

추경으로 증액되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내면의 힘을 기르고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등 교실수업 개선에 79억원, 신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 육성 등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에 71억원을 투입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하기 위해 2학기 초등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따른 수요자 및

충형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개선에 166억원을 증액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재구조화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15억원,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센터 구축과 유아교육 운영에 36억원을 지원한다.

미래를 담는 안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구축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 미래형 학교 공간조성에 711억원,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환경 조성 과 교원 역량 강화 등 디지털교육혁신에 256억원을 투자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학부모 상담실 구축, 지역교원보호센터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 33억원을 미래세대의 가족 형성에 대한 가치관 교육 등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인식 교육에 16억원을 지원해 소통과 배려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건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0~27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9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황태용 기자

이철우, "APEC 사무총장님 내년에 경주서 봅시다"

외교부 이 달 중 후보지 결정 경주·인천·제주 3곳 후보도시 현장실사... 경주시 자연 경관 호텔, 리조트 등 '숙박' 시설 만족 높고, 공항 접근·안전성 뛰어나 유치 희망 부쩍 기대



사진설명=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달 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최하는 제주 포럼 만찬에 참석해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Datuk Dr Rebecca Fatima Sta Maria) APEC 사무총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 까오 끄 후는 ASEN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 만나 APEC 경주 유치 활동을 펼쳤다.

조 장관은 "경북이 의전 등 APEC 경주 유치를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열정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또 레베카 파티마 스타마리아 APEC 사무총장을 만나 "APEC 사무총장님 내년에 경주에서 봅시다"고 인사를 건넸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달 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최하는 제주 포럼 만찬에 참석해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Datuk Dr Rebecca Fatima Sta Maria) APEC 사무총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 까오 끄 후는 ASEN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 만나 APEC 경주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 지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경북도 민들은 APEC 경주 유치를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해요"...대구교육청, 우리동네행복투어 운영

가족 구성원 간 친밀·행복감 높이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

대구교육청은 지역 연계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이고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성장과 사회적 발달을 돕기 위해 온(溫)통맘과 함께 떠나는 우리동네 행복 투어를 운

영한다. 온(溫)통맘과 함께 떠나는 우리동네 행복 투어는 가족이 대구근대골목을 문화해설사와 함께 다니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이다. 22일까지 총 4회 진행된다. 초3부터 중3 자녀를 둔 희망 40가족(80명)이 참여한다.

도는 2021년 7월 6일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도전을 공식 선언한 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펼쳐 146만 3874명의 지지를 받았고, 경북도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과 경기도의 지지 요청을 끌어내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다.

외교부 실사단은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후보도시 현장실사에서 경주의 자연 경관과 호텔, 리조트 등 숙박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공항 접근성과 안전성도 뛰어난 것으로 판단했으며, 도시의 역사 문화적인 면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PEC 정상회의가 세계문화유산 집적지인 경주에 유치되면 2030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과 함께 세계인이 방문하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경주와 제주, 인천 등 APEC 개최 후보지 3곳의 현장실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후보 도시 유치설명회와 개최도시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개최도시를 최종 확정한다. 윤용환 기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옷, 한복 입기 체험 △비석치기,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 △이상화 고택에서 가족 백일장 △가족들과 함께 활동하는 다양한 미션 사진 찍기 △사진을 활용한 가족소통대화 및 우리 가족 행복카드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 간 친밀감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예천 금당실정보화마을, 3년간 1290만원 기탁

용문면 금당실정보화마을은 지난 3년간 바자회에서 모은 1290만원을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스클럽회원으로 인증받았다.

금당실정보화마을(위원장 안준식)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바자회를 열어 모은 수익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성금으로 기탁해왔다. 안준식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해 준

용문면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금당실정보화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권영의 용문면장은 "매년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온 금당실정보화마을의 나눔리더스클럽 인증을 축하드린다"며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안동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기준 개선

안동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옹부관 소회의실에서 '2024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규제개혁 T/F팀원이 발굴한 20건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발굴과제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기준 개선 △영업후계자 요건 연령 제한 폐지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개선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실수나 착오인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보조금 환수와 6개월 이내의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행정처분 시 위반사항 경중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그동안 △현행법상 영업후계자 요건 중 3ha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55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돼, 나이 때문에 다른 요건(영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수)을 갖춰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고령화 추세를 적절히 반영, 전문영업인의 기준을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를 개선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전기발전사업(태양광)허가를 받고도, 관내 한전 선로 및 변전소 변압기 연계 용량 초과로 송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례적으로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송전선로 확보를 추가해 민원인의 피해와 행정의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검토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안건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 신문고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창구 등을 활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쓴다. 신동보 부시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작은 규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 또는 기획예산실(840-503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명주 기자



김재욱, 국비확보 위해 심 없는 소통 행보

국비확보 국회의원과 머리맞대 칠곡군 '시책사업' 원활한 추진 지속적인소통 유기적 협력부탁



칠곡군은 지난달 29일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심정보 군의장, 박순범 도의원 등 30여 명과 함께 국회를 방문, 정희용 국회의원과 '칠곡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8건 총사업비 1567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과, 10건의 계속사업에 대

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며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칠곡군의 신규사업들로 △유해발굴 유물 전시관 건립 △북삼경호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 △스마트과빙을 위한 디지털전동화 기반 농기계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오평-덕산간(리도2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등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양봉바이오 치유산업 혁신밸리 조성 △칠곡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북삼역 진입도로 개선사업 △국가하천 낙동강 친수지구 확대 건의 등 계속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지원과 협조도 요청했다. 칠곡군 중학교 학교장 및 중학교 조정 △생산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석적읍 남울어린이공원 재정비 △기산, 가산, 금산, 석적, 지천과코골프장 조성 및 확충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조미경 기자

2024 경북도 세계인의 날 페스티벌 개최

세계 안 경북, 경북 안 세계 세계인과 발맞춰 나가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안동시는 제17회 세계인의 날(매년 5월20일)을 기념, 지난 1일 안동탈춤공원에서 '2024 경북도 세계인의 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경북도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가족센터안동가족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안동시민과 경북도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탈춤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박터뜨리기 화합 세레모니 △세계의 이상 퍼레이드 △각국의 문화체험(베트남의 11개국) 공간 △음식 체험 공간 △기념품 만들기 △물놀이 공간을 운영, 불

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 경북도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인의 축하공연을 마련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정주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송명주 기자

경산시,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든다

지방시대 지역혁신 동반성장 춘계 포럼

경산시는 지난달 30일 영남대학교 이시원 글

로בל 컨벤션 홀에서 경산시청, 영남대학교 총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교수와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대응 지역혁신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심각한 저출

산,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동반성장 과제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포럼이 민·관·산·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미경 기자

A large advertisement for the 'fb' (Farm Business) program. It features a central graphic with the text '농업이 있다' (Agriculture is here) and '농지' (Farmland). To the right, there is a list of details: '지원대상' (Support targets), '대상농지' (Target farmland), '연금수령액' (Annuity amount), and '가입혜택' (Benefits). At the bottom, there is a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Logos for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and 'fb' are also present.



경주의 한 배달 라이더(원래는 말을 타는 사람을 지칭하는 영

배달 라이더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식당 사장 목숨 구해

단어인데 현재는 보통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칭)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인공은 경주 바로고 천마지사서서 근무하는 이태훈(34사진) 라이더.

2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분께 이 씨는 배달을 위해 들린 식당 주방에서

여성이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씨는 곧바로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한 후 119상황실과 통화하며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은 식당 주방을 비추고 있던 CCTV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경주시, 1680억 규모 올해 첫 추경 편성...



주낙영 시장이 지난 31일 제2회 경주시 아동권리 골든벨 퀴즈대회에 참가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총 예산 2조 680억으로 늘어 시민 생활 안정 중점 둔 편성

경주시가 168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 예산 1조 9000억원 보다 8.8% 늘어난 액수로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경주시 예산은 2조 68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추경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1조 7783억원으로 1423억원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2897억원으로 257억원 증액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시의회와 협조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재원은 △지방세수입 100억원 △세외수

입 203억원 △지방교부세 502억원 △조정교부금 184억원 △국도비보조금 115억원 △보전수입 576억원 등이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단독주택 도시 가스 공급사업은 4억원 증액된 10억원 △산내면 상수도 확충 15억원 증액된 45억원 △양남 환서교 재가설 공사 7억원이 증액된 17억원 △감포 권역단위 거점개발 10억원 증액된 16억원 등이다.

이어 △석장동 공용주차장 마무리 조성 15억원 △보덕 천군제3교 재가설 공사 8억원 △유림 지하차도 구조개선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지원을 위해 △경주페이 할인 판매보전금으로 36억원 증액된 120억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 △조산료 사일리지 제조 생산비 지원 10억원이 증액된 14억원 등을 확보했다.

시는 △청년 임대주택 사업 33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0억원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사업 27억원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

업 12억원 △삼광비 재배 농가 경영안전 지원금 지급 19억원 △국내복귀투자사업 보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풍수해보험운영 2억원 △재해분석평가 용역 10억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험실 건축 1억원 △두류공업지역 완충지류시설 기본설계 용역 2억원 등을 확보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10억원이 증액된 23억원도 함께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는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5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4억원 증액된 7억원 △어린이집 영유아 식기 세척살균 지원 2억원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 운영지원 2억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 12억원 △경로당시설 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경주시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은 경주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아동권리는 어른이 배우고 지켜요...

2회 경주시 아동권리 골든벨 성료 김규현 아동 권리상 1등 영예 안아

경주시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인식 개선에 나섰다.

시는 지난 31일 시청 앞천호에서 골든벨 참가자, 가족,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주시 아동권리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참가자는 초등학교생이 참석했던 지난해와 달리 '아동권리는 어른인 우리가 배우고 지켜요'라는 주제로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모집했다.

프로그램은 성인 88명이 참가해 '도전! 골든벨'과 같은 서바이벌 퀴즈방식으로 최후 1인이 남을 때까지 펼쳐졌다.

퀴즈 문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경주시 현황 등 다양한 내용으로 출제됐다.

참가자들이 아동권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와 문제 예시를 사전에 배포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당일 예상문제와는 별도로 다른 문제도 제공됐다.

참가자들은 정답을 맞힐 때마다 합성을 자아냈고, 어려운 문제로 대거 탈락자가 나올 때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간에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분위기 전환을 위해 패자 부활전과 주낙영 시장이 함께 하는 특별 퀴즈 시간도 함께 가졌다.

대회 후 최종 5인에게는 △아동권리상(김규현) △아동친화상(김은정) △아동행복상(최정란) △아동참여상(이지형, 전미향) 등의 상장과 총 12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아동권리상(1등)을 차지한 김규현 참가자는

지난해 제1회 아동권리골든벨 1등을 수상한 김승한(초5) 어린이의 아버지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자 만반의 준비를 기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경주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 중계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이번 골든벨을 통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해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른과 아동이 모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5 APEC 유치 기원 제17회 경주시민의 날 행사 개최

시민과 함께, 언제나 경주해 주제 경주비전 공유, 축제의 장 마련...



경주시는 오는 8일 황성공원 타임캡슐광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기원하는 제17회 경주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시민과 함께, 언제나 경주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들과 시청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행사는 식전 공연, 1부 기념식, 2부 경주비전 퍼포먼스와 축하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1부 기념식에서는 개막 영상과 시민 현장 낭독, 기념사 및 축사,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축하 영상, 경주 문화상 시상, 시민의 노래 합창 등이 진행된다.

경주시와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외 4개 도시에서 경주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2025 APEC 경주 유치를 응원하는 영상이 소개된다.

경주시 문화상 수상자는 △교육·학술 부문 손영규 △사회·체육 부문 이용호 △특별상 부문 한주식 씨다. 문화상 대상자는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2부 행사는 레이저 미디어 쇼를 시작으로 스트릿의 여왕 장윤정 △퍼포먼스 킹 나태주 △미스트롯3 올하트 이수연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레이저 미디어 쇼는 경주의 역사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담아 미래 첨단과학도시로 도약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행사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마무리된다.

시는 행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행사 주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행사 하루 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

포스터와 현수막, 전광판, 시 누리집, SNS 채널에 시민들에게 행사를 널리 알린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한다.

당일 행사장에는 '2025 APEC 경주'와 '고향 사랑기부제' 홍보 부스 등이 각각 운영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경주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민의 날은 박혁거세의 신라 건국일인 기원전 57년 4월 병진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로 지정됐다.

경주청년회의소, 장학금 100만원 기탁

장학금을 발판 삼아 사회서 중요한 역할하는 인재 성장

경주청년회의소는 지난달 29일 미래 경주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육성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장학금 100만원을 (재)경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

'변화와 혁신, 꿈을 향한 경주JC'라는 슬로건으로 회원 간의 상호교류와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는 경주청년회의소는 지난 1968년 창립해 현재 7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김진철 회장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학금을 발판 삼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제16회 Beautiful 경주! 환경대축제, 성황리 마무리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환경퀴즈 골든벨 진행



지난 1일 환경대축제 행사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탄소중립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경주시는 환경의 날(6월5일)을 기념, 지난 1일 황성공원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제16회

Beautiful 경주! 환경대축제'를 개최했다.

경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경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 학생, 기업체, 사회단체 등 3000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다양한 환경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환경의 날은 유엔이 1972년부터 6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우리 함께 ESG &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라는 부제로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행사를 펼쳤다.

행사는 팬플룻 연주와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환경보전 분야 유공자 표창, 탄소중립 표어·포

스터 공모작 시상, 탄소중립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친환경 체험·전시 및 홍보부스 운영, 환경미술대전, 환경퀴즈 골든벨, 숲속 영상관, 숲속 놀이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환경보전 의식을 몸소 체험했다.

유치부와 초·중·고등부로 나눠 진행된 환경미술대전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 그린리더 육성을 선도하기에 충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은 소소한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도 실천할 수 있다"며 "갈수록 기후 위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주시, 한중일 협력의 선봉에 서다!

경주시는 지난달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주최로 열린 '한중일 협력의 날(TCS Day)' 행사에 한국을 대표해 경주시 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행사는 TCS 이회섭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국 대표의 축사 및 한·중·일 협력 25주년을 기념하는 디지털 책자 공개행사, 서예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진행됐다.

3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한·중문화우호협회에서 중국의 전통문화를, 다도우라센케 서울협회에서 일본의 다도를 시연하여 방문객들에게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소개했다.

시는 신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품을 준비한 행운권 추첨과, 금관을 쓰고 신라복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참가자의 호응을 얻었다.

경주시 관계자는 "4년 5개월만에 한일중 정상회담이 개최, 3국 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 TCS 한중일 우호협력의 날 행사

에 경주시가 대한민국 도시를 대표해서 참가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은 2011년 9월 1일 한중일 3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한·중·일 협력의 날은 2010년 5월 30일 3국이 모여 TCS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날을 기념, 개최됐다. 경주시는 일본, 중국의 자매·우호도시들과의 교류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해 3국 협력에 기여한다.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웰리스관광도시 영덕’ 세계속으로~



영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복지선진지 견학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는 지난달 30일 장애인복지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견학을 했다.

견학은 장애인분과 위원 및 실무자 등 10명이 참가, 구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상담사례지원사업 △재활 및 직업지원사업 △문화복지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지역연계협력사업 △주간보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장애인체육관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분과 관계자는 “이번 견학을 통해 다양해지는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발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복청송 아카데미, 5월 27일 강연 개최

청송군은 지난달 27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행복청송 아카데미 5월 강연을 개최했다.

강연에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는 ‘연결과 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기술의 발전과 상황의 변화에도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장동선 박사는 과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글로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 중이며 ‘알쓸신잡’, ‘어쩌다 어른’, ‘방구석1열’, ‘세지하’ 등 방송에 출연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군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청도군, 방역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진행

청도군은 지난달 29일 하절기 올바른 방역 및 방역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방역담당자 및 방역요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방역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방역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은 유해해충의 이해 및 생활사, 방역약품 사용법, 방역작업 시 주의사항,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의 소개 및 활용법 등 방역요원들이 현장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2024 코리아 헬스&웰니스 페스티벌에 참여

영덕군이 ‘2024 코리아 헬스&웰니스 페스티벌 (in코리아뷰티페스티벌)’에 참여했다.

행사는 지난달 31~2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내 최대 의료 웰니스 테마 축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했다.

6월 한달간 광화문에서 시작해 홍대, 성수, 명동 등지에서 열리는 2024코리아뷰티페스티벌의 메인 무대였다.

건강한 성 위해 에이즈 예방 교육

울릉군보건의료원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울릉군 내 중학교, 고등학교, 군부대를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을 했다.

예방교육은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과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그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 및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학생과 군인들의 특성에 맞추어 각각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에이즈의 정의, 감염 경로, 예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고 전문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군부대에서는 단체 생활로 인해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장병들에게 중요한 시간이 됐다.

장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김영현 울릉보건의료원장은 “에이즈 예방교육으로 학생들과 장병들이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올바른 예방 습관을 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방교육은 지역사회에서 에이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울릉보건의료원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영양군, 24 재난대비 상시훈련 실시

영양군은 지난달 31일 2024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영양문화원에서 실시했다.

재난대비 상시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실시한다.

훈련에는 영양군청, 영양문화원, 영양119안전센터 등 약 40여 명이 참여, 문화원 화재 발생에 대한 경보발령 및 진화작업, 대피법 등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5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연계, 소화기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소소심교육 시간도 가져 참석자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군은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속한 협업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화재는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화재 없는 영양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일월면, ‘섬촌리 마을잔치’ 개최 지역내 어르신 공경문화 전파

영양군은 지난달 31일 2024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영양문화원에서 실시했다.

재난대비 상시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일간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구며 펼쳐진 ‘2024 코리아 헬스&웰니스 페스티벌’은 영덕군을 비롯, 전국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과 최첨단의 의료 기술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관 등 총 112개소가 참여했다.

각 업체와 기관들은 △헬스존 △웰니스존 △한류 체험존 △K-뷰티존 등으로 나누어 부스를 구성했고 하루 2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을 집중시켰다.

군은 군단위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충북, 강원, 전북 등 광역지자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웰니스존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웰니스존은 마음, 해양 숲 치유 등 세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총 21개 기관과 관련 업체가 특색

있는 부스를 꾸미고 관람객을 맞았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마음힐링 부스를 열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명상 등 다양한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9년 개관하여 비움과 회복의 시간,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란 테마로 명상아카데미, 웰니스시만캠프를 진행해온 ‘인문힐링센터 여명’의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고 올해 3년 차에 접어들어 한국, 인도, 미국, 독일까지 참여폭이 확장된 ‘영덕국제웰니스페스티벌2024’를 직접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페스티벌에 약 12개국 123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개막 전담, 대규모 ‘트래블 마트’를 개최했다. 페스티벌을 경제효과

로 연결하는 비즈니스 매칭의 장이었다. 이 현장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112개 참여기업, 32개 기관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려 한국 의료 웰니스 관광 상품을 판촉하는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 대성황을 이뤘다.

영덕문화관광재단 웰니스문화사업본부도 오는 10월 3~6일까지 열리는 ‘영덕국제웰니스페스티벌’을 적극 홍보하고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영덕국제웰니스페스티벌’은 고래불해수욕장 내 국민야영장에서 대대적으로 열린다.

김광열 영덕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영덕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의료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개발, ‘웰니스관광도시 영덕’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청송군, 500년 역사 넘어 천년의 약속으로

청송군, 2024 제1회 청송백자축제대성황

제1회 청송백자축제가 수많은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행사는 청송백자도예촌 일대에서 지난달 31~2일까지 3일간 열렸다.

행사 기간 수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몰리면서 자연히 축제는 활기를 띠었고, 각종 체험 홍보 부스, 백자 할인 판매 부스, 주왕산관광단지에서 조성된 꽃양귀비 단지 등에도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소원장작쓰기, 백자놀이, 터, 핸드페인팅, 몰래시연 및 체험, 파기체험, 청

송백자 팝업전시, 소원 풍경 등 달기 등으로 진행됐다. 거리공연, 다도다식체험, 청송백자 마당극, 장작가마번조행사 등이 진행됐다.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트롯가수 공연, 불꽃놀이, 화합의 한마당 등 지역 내의 예술인들도 참여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축제기간 중 청송백자를 최대 40% 할인(일부 품목 제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윤경희 청송문화관광재단 이사장(청송군수)은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송백자축제가 되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송백자축제를 방문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청송백자는 조선시대 4대 지방요(해주백자, 회령자기, 양구백자) 중 하나로 16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5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조선 후기 대표적 도자기이다. 윤병문 기자



울진군, 아이~노인까지 모두 행복한 울진 만들기 총력

손병복 울진군수, 죽변면 민생 투어 5월 가정의 달 ‘2024 군민 섬김데이’

손병복 울진군수가 ‘2024 군민 섬김데이’ 민생 현장 투어 네 번째 장소로 죽변면을 방문했다. 죽변면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푸르미작업장과 어린이집, 마을회관을 찾았다.

‘군민 섬김데이’는 손병복 군수가 군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생활민원이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에이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실시한다.

훈련에는 영양군청, 영양문화원, 영양119안전센터 등 약 40여 명이 참여, 문화원 화재 발생에 대한 경보발령 및 진화작업, 대피법 등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5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연계, 소화기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소소심교육 시

민생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인 푸르미작업장은 표고버섯을 생산·판매·납품하는 시설로 작업장을 둘러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삼일어린이집과 죽변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일일 보조교사가 돼 동화책도 읽어주고, 함께 블록쌓기도 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보육 교직원들의 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 및 현안에 대해 청취하며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보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린이집에서도 우리의 미래 주역인 아이들

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했다.

죽변3리, 죽변5리 마을회관을 방문, 일일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 군수는 “민생담방으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손 군수는 “제기된 민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좋은 의견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영천, 밀원수 식재 행사 개최... 사라진 꿀벌, 보현산담에 등장



영주시, 충훈탐서
호국영령 위패 봉안

영주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휴전동 충훈탐에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뜻을 기리기 위한 위패봉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봉안식은 박남서 영주시장, 보훈단체장 및 유가족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와 분향순으로 거행됐다.

참석자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나라사랑의 뜻과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위패봉안식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故 강이태 병장 등 10위의 위패를 봉안했다.

현재 충훈탐에는 이번에 봉안된 10위를 포함해 1천188위의 위패가 안치돼 있다.

박남서 시장은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후손들은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6·25참전유공자회 봉화군지회,
6·25전쟁 바로알리기 교육 실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봉화군지회는 지난달 30일 관내 석포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6·25전쟁 바로알리기 교육'을 실시했다.

6·25참전유공자 봉화군지회는 6·25전쟁의 진실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관내 1개 학교를 선정해 6·25바로 알리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6·25전쟁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황인호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안보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6·25전쟁 발발 배경과 원인, 전쟁의 참상과 결과, 교훈 등을 교재 등을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석포초 재학생들은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처참했던 전쟁 상황을 교육을 통해 실감했으며,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도록 만들어 준 호국영웅 참전용사 어르신들께 힘찬 박수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우치하 6·25참전유공자회 봉화군지회장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의 우리나라의 바로 현실을 알아야 하며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보현산담지사는 세계 별의 날을 맞아 지난달 30일 보현산담 상류인 공습지에서 영천시(농업기술센터), 한국양봉협회(영천시지부), 지역주민 등 약 50여명과 함께 밭나무, 바이텍스 840그루의 밀원수를 식재하는 행사를 가졌다.

K-water 보현산담지사가 꿀샘나무 식재에 나선 것은 댐상류 과수 농가 작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꿀벌 실종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 몇 년간 꿀벌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꿀벌 감소가 질병, 농약, 밀원수 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최근엔 기후변화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꿀벌은 대표적인 화분 매개자로 꽃의 재생산과 종자, 열매의 결실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유엔식



영주시, 시민과의 소통행정 '365 열린시장실' 운영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초청, 저출산 보육정책 소통 시간 가져

영주시는 지난달 30일 '저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15명을 시장실로 초대해 '365 열린시장실'을 운영했다.

이번 만남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영주시 보육정책 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육의 최일선에서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열린시장실은 현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 받는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현 어린이집 김미옥 원장은 "외국인 아동 어린이



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원범위가 3세에서 5세까지 외국인 아동으로 한정돼 있다. 2세 이하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원의 혜택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세자녀를 키우고 있는 임종은 학부모는 "올해 시간제 보육사업이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 범위가 축소돼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가감 없는 소통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저출산 시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돌봄 공백 해소 방안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건의 등 영주시 보육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소통을 주재한 박남서 시장은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어린이 보육에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보육정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이날 만남을 시작으로 매월 시민들을 시장실로 초대해 '365 열린시장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장소통 Run to you', '시민행복민원실' 등 발로 뛰는 현장 소통을 통해 얻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해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상주영천 고속도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지난달 29일 평호터널(상주방향 36.2Km지점)에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각종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차,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합동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안전한국훈련 중점사항인 본사와 현장의 통합연계 훈련을 적극 반영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평호터널 입구부 산사태를 가정하여 비상소집, 대피, 재난상황보고, 재난관리 자원 응원훈련 등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시행했다. 상주영천고속도로 관계자를 비롯해 군위군 산림사무소·안전관리과, 군위 경찰서, 강북 소방서 군위 119 출장소 등 관계기관 64명의 인력이 참여하고 장비 36대가 투입되는 가운데 풍수해 발생에 따른 산사태 복합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

박재성 기자

성주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4년 집단상담 실시

성주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성주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6회에 걸쳐 자존감향상 프로그램(4회), 진로발달검사(2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소년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기치개를 켜봐"는 자존감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방법과 더불어 또래와의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하고, 진로발달검사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이해하여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성주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매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참여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재훈 기자

고령군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제 고령군민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성공적인 호응

고령군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호응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군은 지난달 1일부터 노2리마을(생비원)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1개월간 2기수로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집된 참가자들은 "고령군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기 전 설렘과 걱정으로 입소를 했는데 영농체험, 고령군 탐색, 선도농가 방문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소중한 인연을 맺고, 많은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특히나 2기 참가자들은 대구경북 KBS 1TV '라이브 오늘' 방송 촬영을 하면서 고령군에서 더욱 잊지 못할 추억을 가졌다.

성주군,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교육 실시

탄소중립 실천 방법 등 환경 감수성 향상

성주군은 지난달 30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실과교사 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9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 인식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교육내용은 △경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소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의 국내외 사례 △탄소

중립 실천 방법 △온실가스의 이해 등 성주군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내용이 진행됐다.

강의는 환경교육 경험이 풍부한 환경부 국가환경교육강사 김효남 강사가 진행했다.

성주군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및 공동체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과 함께 가까운 곳은 걸어가기, 자원 및 에너지 아껴쓰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를 강조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앞으로 성주군에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재훈 기자

봉화군 마을순찰대 발대식 개최...

봉화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봉화군 마을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을순찰대의 역할을 교육했다.

주민대피 시스템 중 하나인 마을순찰대는 올해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K-Citizen Firs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마을 주민 대피 안내와 대피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마을순찰대 발대식에서는 여일규 봉화

군 지역자율부단장이 발대식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마을순찰대장 위촉식도 함께 진행돼 봉화군 157개 마을에 157명의 마을순찰대장이 위촉됐다.

이날 발대식 이후에는 경운대 안전방재공학과 전상철 교수의 자연재난 대비 마을순찰대 교육이 진행돼 마을순찰대 대원 및 담당마을 공무원으로서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전후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성기 기자

창간 28주년

※ 접수기간 : 선착순(입금자순)마감

2024 대구광역시보 영덕 사랑나눔 gOLF 큰잔치



7월 24일 수요일 | 참가자 전원
영덕오션비치 골프&리조트 |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 행사장소 : 오션비치 2층 대식당

참가규모 총40팀(160명)

접수기간 ~**선착순마감**(입금자순)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 13분 ~ 순차티오프

참가신청

- 참가자격 : 전국 남·여 아마추어골퍼
- 당일 참가비 : 23만원(그린피18h, 카트1회, 저녁만찬, 참가 시상품등)
- 1박2일 참가비 : 45만원(그린피36h, 카트2회, 저녁만찬, 숙박, 조식, 참가 시상품등)
- 참가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 김영숙
- 선입금 : 선착순마감(신청확정 후 취소시 환불불가)※본인이 양도는 가능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대회 참가 연예인>



사회 김용일



가수 우순실



가수 백봉기

※출연 연예인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시상내역

- 매달리스트(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우승(통합) : 풀세트
- 신페리오 준우승(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3위(통합) : 드라이버
- 니어리스트(남·여) : 퍼터
- 롱 기스트(남·여) : 드라이버
- 이글상, 최다 버티, 파, 보기, 더블파등
기타 상품지급!